



## 09. 자아탐색 II - 직업흥미 이해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흥미 이해</li> <li>▪ 직업흥미검사와 홀랜드 직업흥미</li> <li>▪ 흥미와 적성을 찾아내는 7가지 방법</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흥미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li> <li>▪ 직업흥미검사와 홀랜드 직업흥미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li> <li>▪ 흥미와 적성을 찾아내기 위한 7가지 방법을 알고 활용할 수 있다.</li> </ul>

### <진로지도의 첫 걸음>

자아 탐색, 직업흥미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흥미가 무엇인지, 흥미와 적성을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직업 흥미 검사 결과라든지 그 유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직업 흥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흥미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사실 흥미라는 것이 찾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이 단어를 풀어서 본다면, 흥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흥이 있는 민족이다, 흥이 있는 사람이다, 흥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흥이라는 것이 재미죠, 즐거움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한 개인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흥미라고 한다면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나 현상에 의해서 끌리는 감정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면 긍정적인 느낌이 있을 것이고, 반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흥미가 없다는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바라볼 때도 좋아하는 공부라든지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 관심사를 잘 찾아내도록 하면 좋은데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흥미와 기업이 원하는 흥미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직업에서도 흥미가 있는데 기업에서는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직업에서 가지는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한 개인이 그쪽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 쪽이나 회계 쪽이나 수리 쪽을 좋아할 것 같고 인사나 관리나 이런 곳을 본다면 한 개인이 사람에 대한 관심, 리더십에 대한 흥미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바라보게 됩니다. 직업흥미 검사나 직업 특성검사를 통해서 그런 흥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흥미가 없으면 일을 지속해 나가기 어렵다는 것이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흥미와 역량이 있는데 이것이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흥미는 대단히 높지만 역량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노래에 대한 흥미, 음악에 대한 흥미는 대단히 높는데 역량이 안 되어서 음치 박치 몸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체적인 그런 것들 외에는 흥미가 높으면 일도 장

기적으로 보면 잘 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학생들도 어떤 대상에 흥미가 있다면 그 부분을 지속해 나가면 역량도 키워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업 상담 초기에 했던 고민을 어찌면 여러 선생님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가 찾아왔을 때 이분들에게 딱 맞아떨어지는 적성과 흥미가 딱 맞아 떨어져서 그러 직업을 찾아줄 수 있는 검사가 있다 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찾아주지 못하는 제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분야에 일을 거의 20여년 하다 보니깐 느낀 것 중 하나가 오히려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황이 있고 독특한 어떤 기질적 성격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딱 맞아 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든 검사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라는 것은 적절한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혹시 영화 가타가 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20여년이 지난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흥행에서 실패했던 영화입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우머 서먼하고 주드로 라는 배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두 형제가 나옵니다. 어린 주인공은 미래시대에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아이입니다. 어떤 문제냐고요? 미래 시대에는 DNA를 바꿀 수 있는 시대입니다.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면 열성인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성인자가 되면 직업이 정해집니다. 청소부라든지, 허드렛일이라든지 좋은 일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3D일은 다 해야 됩니다. 아이가 열성인자로 성장합니다. 시력도 나쁘고 건강도 안 좋고 공부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부모님이 둘째 아이에게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DNA를 좋은 우성인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동생은 공부도 잘하고 튼튼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 친구들은 검찰, 형사, 우주 조종사 이런 큰 일 들을 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주 조종사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꿈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이런 DNA 검사에 의해서 떨어지는 열성인자들은 직업이 정해집니다. 얼마나 우울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동생에게 지기 싫었던 주인공이 경기를 제안합니다. 수영을 하자라고 해서 저기 보이는 섬까지 누가 빨리 갈 수 있느냐 라고 경기를 하자고 합니다. 한 번도 형에게 쳐 보지 않았던 동생은, 한 게임 하자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수영에서 지고 맙니다. 동생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내가 열성인자인 형에게 질 수 있냐고, 형이 치팅 한 것 아니냐고 따집니다. 형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 섬에서 저기까지 되돌아갈 에너지를 남겨 놓았을 꺼야. 하지만 나는 죽은 힘을 다해서 여기 까지 오려고 해서 내 온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갈 힘없이 까지도 너를 이길 수 있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랑했던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자신의 꿈을 찾아 나갑니다. 나머지는 영화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흥미와 적성이 맞아떨어져서 직업을 정해주면 검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아 볼 수 있을지 선생님들이 모둠 학습을 통해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지 같은 것 펼쳐놓으시고 자유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흥미를 찾아 낼 수 있을까... 그러면 학생들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험에서부터, 검사에서부터 워크넷도 보고, 그동안에 선생님들에게 배웠던 것도 나오고 부모님에게서 나오고 티비에서나 책에서 본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흥미와 적성을 찾아 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고, 사실 고민은 많이 해봐야지 자신에 대한 탐색에서 중요한 과제이거든요 이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면 그런 흥미와 적성이 딱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고민해 본 사람에게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듯이 우리 학생들이 고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나눠주시고 학생들 간에 대화를 해주시고 선생님이 가이드 해주시면 좋은 수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흥미 적성

검사, 홀랜드 검사에서 여러분 조금 더 상세한 정보들 보고 검사를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진로지도의 이해>

직업흥미 검사결과와 5가지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직업선택도 검사L형은 개인의 직업흥미, 성격, 생활사를 측정하여 흥미특성 별 적합한 직업을 제시하여 직업의사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흥미란, 직업 선택 시 적성과 함께 가장 많이 고려되는 요인이며, 어떤 종류의 일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가에 대한 정보는 향후 만족스러운 직업활동 예측에 중요합니다. 직업흥미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흥미패턴으로 자신의 흥미패턴에 적합한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흥미패턴에 맞게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직업세계와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측정도구인 심리검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심리검사의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사람마다 결과가 다르게 제공되기 때문에 결과에 옳고 그름이 없으며, 좋은 결과 나쁜 결과는 없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Holland 직업흥미는 개인과 직업환경의 흥미특성을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흥미와 직업환경이 서로 일치할 때 만족도와 적응력이 높아집니다. 홀랜드의 흥미 육각형은 정육각형에 가깝고 크기가 클수록, 흥미가 매우 다양한 분야에 속하거나 여러 가지 대안을 남겨두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육각형에 가깝고 크기가 작을수록,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매사에 흥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Tip버튼을 클릭하여 흥미 육각형의 5가지 모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홀랜드 직업흥미란 무엇일까요? 홀랜드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생물학적 능력과 인생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재능이 발달되는데,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성격유형은 동료나 생물학적인 유전, 부모, 사회계층, 문화, 물리적 환경 등을 포함한 개인적인 요인과 다양한 문화 간의 독특한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는 최대한 간단한 검사결과를 추구해서 6가지의 성격유형과 6가지의 직업환경이 유전적 기질과 환경적 영향을 통해서 한 개인의 성격적특성이 발달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홀랜드 이론은 3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진로만족과 방해요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 또는 환경적 특성이 진로선택과 진로참여에 대해 만족할 수 있게끔 이끄는가? 어떤 특성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방해를 하는가? 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으로, 직업안정과 변화요인으로 어떤 개인적 또는 환경적 특성이 직업의 안정 및 변화를 가져오며, 평생 동안 계속해서 직업에 종사하도록 하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로문제 해결방법에 관한 것으로 진로문제에 있어서 개인을 도와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홀랜드의 직업성격 유형은 크게 6가지로 나타납니다.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각각의 탭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 걸음 더! 꿈Job이 TIP>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흥미와 적성을 찾아줄 수 있을 까요? 제가 7가지 방법을 정리 해 봤는데요, 선생님들 보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직업 심리 검사입니다. 홀랜드 검사 보셨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검사가 있는데요, 워크넷을 한번 보시면 청소년 대상 심리 검사도 있습니다. 직업흥미 검사라든지, 직업 흥미 적성 검사라든지 직업 가치관 검사, 직업에서 어떤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느냐 요즘 참 중요하거든요. 직업 인성 검사라든지 다양한 진로 발달 검사에서 다양한 검사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검사들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보수가 적더라도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떤 제약 조건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이런 것도 모둠을 통해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꼭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인지 남들이 보기 좋아야 하는 직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떠나서 해보니까 어떤 막힘도 없이 직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직업을 탐색 해 볼 수 있는데요, 주변의 사례들 모둠 수업을 통해서 가족, 친지들 중에서도 그렇고 그런 흥미를 통해서 취미를 통해서 직업을 삼은 사례들, 또는 언론을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 찾아 볼 수 있겠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흥미를 가지고 어떻게 직업에 적합할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 뵈었던 분 중에 캘리그래피 이지연씨가 있는데요, 이분은 밴드를 왼손 붓잡이 캘리그래피라고 해서 글 써주는 일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글쓰기를 요즘은 아주 짝어내기 보다는 아날로그고 느낌이 있잖아요, 그 사람밖에 없는 독특한 글잡이에 대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캘리그래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가르쳐준 학생 중에서 한명도 아나운서가 꿈이었는데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오픈 마인드로 보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캘리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혀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 쓰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을 할 때도 평범한 선물이지만, 그 안에 캘리그래피로 적어서 보내면 상대가 바라봤을 때 굉장히 감사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꼼꼼히 하나를 쓰는데 너무 잘 썼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따뜻한 독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 친구가 써준 것입니다. 물론 여러 번 썼겠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따뜻한 이라는 느낌이 햇살이 짝 들어오는 느낌이고 독설을 하는데 칼날처럼 내려가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안 배워보고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성적표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 대신에서 부모님 싸인을 본인이 흥내를 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런 흥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에게도 만드는 것에서부터 어떤 흥미가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직업으로 나아갈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청년 중 김민주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여자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남자 분들은 평생을 고민하는 것이 축구거든요. 어린 시절 축구를 못하면 항상 놀림을 받고 활동의 참여에 뒤처지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도 그렇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로 공 못 차면 항상 놀림을 받습니다. 사회생활을 해도 공 못 차면 진급에서도 나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축구를 가르쳐 줍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들 까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흥미가 직업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흥미를 찾으려고 하면 내가 가진 믿음이나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타파해서 성공한 사례를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누군지 맞춰보세요. 이분은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분입니다. 내가 드디어 인기 가수가 되는구나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남들이 못 알아보게 나왔는데 정말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안되겠다

싫어서 모자 벗고 선글라스 벗고 나왔는데도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변 가 요제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던 시대라서 사람들의 관심사가 많이 없게 된 것이죠. 본인은 젊 으니깐 발라드 가수가 되려고 했는데 소속사에 있던 사장님이 너 트로트 하면 해보는 것 이 어떨겠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화가 나는 거죠, 트로트 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는게 아닌 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트로트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게 성공하게 되는데요 누구일까요? 행사의 요정이라고 부르는 장운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직업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이 때로 편견으로 가서 고정관념으로 갈 수 있는 데요 이런 부분들을 타파할 때 자 신에게 맞는 분야를 탐색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누군지 맞춰보세요. 이 분은 초등 학교 졸업 학력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중학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공장의 노동자의 삶 도 살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부랑자 생활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시나리오 작가활동을 했습니 다. 투자를 받는데요, 저예산 영화를 하다보니깐 조폭성향이 있는 분들에게도 저예산을 받아 가서 그분들을 제작자라고 한 시간 늦게 나왔다고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했었지만 굴하지 않 고 성공한 영화감독입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깐느 영화제에서도 상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섬이라는 작품, 영화감독 김기덕씨였습니다. 김기덕 감독처럼, 또는 여러분이 하는 일, 우리 학생들에게도 항상 남들에게 보여주는 일만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밑바닥에 가 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다 면 가장 높은 위치에도 갈 수 있다고 격려했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변화 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지 맞춰보세요. 의사였었고, 대학 교수였었고, 안정된 삶을 버리고 벤처 기업가로 들어섭니다. 벤처 기업도 성공했는데,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모든 이야기는 배제하 고 이야기를 해본 다라면요, 끊임없는 변화에 도전해 나간다는 것, 사실은 쉽지 않은 선택이 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자신의 적성 과 흥미를 찾기 위한다면 학생들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말자, 이런 뜻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여섯 번째, 제가 가르쳤던 학생의 이야기인데요, 진로의 정해진 틀을 한번 뛰어보자 입니다. 남성 직업, 여성 직업. 20대 직업 50대 직업 인문계 직업, 이공계 직 업 이런 직업을 뛰어 보자입니다. 이 학생이 저를 찾아옵니다. 대학을 다녀야될지 말아야 될 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학생이 자신과 전혀 다른 흥미와 적성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을 해보자고 했더니 떠오르는 것이 피부미용사였다 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안하니깐, 비싼 비용을 내고 피부미용을 받았는데요, 그 일이 생각보다 재미 있고 보수도 많이 돼서 대학을 그만 두고 ,독일어 전공이었는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 각하느냐고 저한테 찾아와서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긴 20대 초 반의 남학생이 피부미용에 들어오니깐..전부다 나이 많은 여성 원장님이랍니다. 너무 예뻐해 주고, 나중에 파트 타임으로도 일하게 되고, 남성이 해 주니깐 팁도 주고 오히려 사람들이 좋 아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 둘까 고민하는데 그런 것도 저는 좋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고 경쟁력을 갖춘다면 유럽 중에 선진국이 독일인데 독일 에 가서 공부를 하고 샵에서 일하고 경력을 쌓아서 돌아온다면 화려한 컴백이 되지 않을까.. 국내에서 자기 샵을 열어도 전문가로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더니 교수님 독일 어 공부해서 독일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분야를 도전해 보는 이런 부분에서 정해진 틀을 한번 뛰어넘어보자, 전혀 다른 적성과 흥미를 찾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온 몸으로 도전하는 것인데요. 이분은 모르실 것입니다. 유도선수에서 국제 구호 기구

직원에서 가난한 자들의 기업을 설립하겠다고 마더하우스라는 창업자 일본의 야마구찌 에리꼬라는 기업가인데요, 이분의 26살 도전의 증거라는 책을 제가 읽어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이 책이 절판이 돼서 나오지 않아서 도서관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에는 남자들, 여자들한테 지기 싫어서 유도 선수를 하다가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국제 기호 기구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남들 위한 구호기구에 들어갔는데요, 어려운 나라에 가지 않더라고요. 전부다 전산, 문서 처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방글라데시아에 가봤는데, 그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안 되는데 돈을 주다 보니깐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리더라고요. 너무 당혹스러워서 있는데, 그 곳의 관계자들이 택시를 태워서 보내주더라고요. 호텔에 들어가서 이틀을 올렸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자기가 왔는데, 이렇게 피하고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안정적인 국제기호를 그만 두고 방글라데시에 와서 회사를 설립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메이드인 방글라데시 제품을 만들어서 마더 하우스를 만들어서 방글라데시에서 나오는 독특한 가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공예품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이분의 도전의 과정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잘 격려해주신다면 자신이 꿈꾸는 흥미와 적성 그 이상의 일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